



01. 사회현상의 이해

밀스
(Mills, C. W.)

학습 목표

-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스를 통해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찰스 라이트 밀스의 삶

찰스 라이트 밀스(Charles Wright Mills, 1916-1962)는 20세기 후반 사회과학계와 미국 사회에 크게 기여를 했던 교육자이자 연구자이며, 개혁가였던 미국의 사회학자이다. 밀스는 미국의 지배 계급을 분석한 『파워 엘리트』와 중간 계급을 파악한 『화이트칼라』, 개인적인 삶이 사회 구조, 연구 방법 등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논증을 담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저술하였다.

밀스의 대표 저서인 『사회학적 상상력』은 모두 11편의 서로 다른 주제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장별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인간, 사회, 역사, 이론, 방법, 과학, 이성, 자유, 정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책의 '1장: 약속(the promise)'에서 그는 이 책의 제목이자 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사회과학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보고 있다. 즉, 밀스 주장의 핵심은 개인의 삶과 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과학자에게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밀스가 말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은 개인 문제와 공적 문제를 구분하고, 개인 문제를 공적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인구 10만 명의 어떤 도시에서 한 사람만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 문제라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개인의 성격이나 갖고 있는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똑같은 전제에서 1천5백만 명이 실업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적 문제라고 본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즉, 밀스는 그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제도에 대한 고찰의 시작으로부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밀스는 개인 문제와 공적 문제를 연결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강조한다. 밀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 혹은 기술의 결함 등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봄과 동시에 이 환경적 요인을 바꾸어주면 본질적 문제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밀스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처음 제시한 이유이자, 사회학 개론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이유이다.